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

"신재생 에너지로 녹색 산업 육성"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전갑길 광주시 광산구청장의 새해 구정 운영 방침이다.

진곡산단에 기업 유치

전 구청장은 "올해 사업의 90%, 사업비의 60%를 상반기 중 조기집행하는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살린 시너지 효과 창출로 자생력을 갖춘 지역경제를 건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장동력원 확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산업, 친환경 자동차 산업, 폐기물 자원화 등 녹색성장 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평동2차 산단과 진곡산단에 기업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마을 특산품 재배 및 농산물 상품화를 지원해 농가소득 향상에 나선다.

전 구청장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청년 인턴십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고용 창출 기업에는 기업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복지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광산구는 경제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공공근로·인턴십 확대

전 구청장은 "시니어 클럽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다문화가정 코디네이터 결연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장애인 작업장 건립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에 노력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저탄소 그린시티 광산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 구청장은 "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한 도심 녹지율 30% 달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범지역 체제,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의 미래성장을 이끌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전 구청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배워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 평생학습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직장인들의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인 '주경야평'을

주민 평생학습기반 마련

지속 추진하고, 권역별 영어학습센터와 거점영어센터를 활성화해 글로벌 감각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구청장은 "전 공무원들이 비장한 각오로 앞장서서 고통을 나누겠다"며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뒷받침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대한민국 으뜸 자치구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오바마,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쿠바 미군기지내 테러용의자 수감시설〉

1년내 조치 …행정 명령에 서명

대선 핵심공약 실천 본격 착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2일 쿠바 관타나모 기지내 테러용의자 수감시설을 앞으로 1년 이내에 폐쇄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대선 핵심공약에 대한 실천에 본격 착수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테러 용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국외에 설치된 모든 중앙정보국(CIA) 수용시설도 폐쇄하라고 명령했다고 고위 행정부 관리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수사관들에게 인권남용 소지가 있는 심문을 거부하고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과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퇴역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타나모 수감시설 폐쇄 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시설은 앞으로 1년 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 수감시설 폐쇄 이후 테러 용의자 처리에 대한 정책을 앞으로 30일 동안 검토해 권고할 전담반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관타나모 수감시설은 명령이 발표된 지 1년 안에 문을 닫게 되며 폐쇄 시점까지 남아 있는 수감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석방되거나, 제3국 혹은 미국 내 다른 수감 시설로 이송된다.

또 수감자들에게는 "인도적인 구금 기준"이 적용되며, 명령이 발표된 뒤 30일 안에 국방장관은 관타나모 수감시설의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관타나모 기지에는 245명이 수감돼 있는데 그들 중 21명에 대해 기소가 이뤄졌고 기소된 이들 가운데 14명이 법정 역할을 하는 군사위원회에 한 번 이상 출석했다.

/연합뉴스

"北核은 당면한 위험"

블레어 DNI 국장 내정자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내정자는 22일 북한과 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충돌 등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단기 외교·안보 이슈로 꼽았다.

블레어 내정자는 이날 상원 정보위(위원장 다이앤 파인스타인)의 인준 청문회에 출석, 답변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반미 테러리스트는 물론 (핵)무기확산 세력, 마약 밀매자, 사이버 공격세력 등 국경을 초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블레어 내정자는 또 "미국은 지금 미국의 생명과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3가지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면서 "반미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이 바로 그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과 인도, 기타 개발도상국의 점증하는 국력과 영향력을 장기적 관점의 도전과제로 지목했으며, 방심할 수 없는 새로운 과제로는 기후온난화, 에너지 공급, 식료품 가격, 전염성 질병을 거론했다.

블레어 내정자는 앞서 상원 정보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단기 우려 이슈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능력 및 (핵개발) 의도 ▲파키스탄의 핵무기 ▲남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폭력사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블레어 내정자는 또 자신이 그동안 국가정보국에서 북한을 담당해온 조지프 디트라니 대사의 외부 자문역할을 해왔다고 밝혀 북한문제에 밝은 전문가임을 시사했다.

블레어 내정자는 태평양사령관을 지낸 해군 4성장군 출신(2002년 전역)으로 국가안보회의(NSC)와 CIA 등에서 정보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힐러리 취임 연설 힐러리 클린턴(오른쪽) 미 국무장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對北정책 성공하려면

美 힘 있는 외교 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터프하고 직접적 외교'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대북(對北)정책으로 공식 채택한 가운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힘을 바탕으로한 외교를 펴야 한다고 미 의회 산하 위원회가 주장했다.

즉,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시 받게 될 혜택과 이를 거부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모두 강조하되, 이런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면 곧바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위협을 북한이 느끼도록 하는 후속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 하원 군사위는 오바마 정부 출범 이틀째인 22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및 테러방지'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정부측에 오바마 정부의 WMD 확산 및 테러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CIA국외 비밀감옥은?

테러용의자 등 2만7천명 수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22일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쿠바 관타나모 기지내 테러용의자 수감시설은 물론 국외 중앙정보국(CIA) 수감시설도 폐쇄토록 명령함에 따라 CIA 수감시설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관타나모 수감시설 폐쇄를 공약했을 때 관타나모 수감시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내세웠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CIA 국외 시설 폐쇄까지 명령함에 따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23일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에 따르면 '블랙 사이트'로 불리는 CIA 국외 시설은 2001년 9월11일 미 본토에 대한 테러가 발생한 지 6일만에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비밀명령으로 승인을 받았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후 5년이 흐른 뒤에야 연설을 통해 CIA 국외 시설 운영을 시인했으나 이들 시설에서 이뤄지는 고문은 "안전하고 합법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수감시설 위치에 대해선 함구했다.

CIA 수감시설 위치가 처음 드러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수도 카불 인근의 바그람 공군기지와 인권단체들이 '염전'이라 부르는 또다른 장소의 지하감옥이 바로 그런 시설들이었다. 이곳에선 전세계에서 붙잡혀온 테러 용의자들을 고문한 뒤 관타나모로 넘겼다.

또다른 시설 출신의 수감자들이 알려지고 인권단체들이 CIA 비행기 움직임을 분석함에 따라 CIA 비밀감옥들은 속속 드러났다. 9·11 테러 이후 이슬람 성전 전사들과 미국간 싸움이 벌어질 지역으로 우려됐던 동아시아 지역의 태국에도 예의 시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폴란드와 루마니아에도 CIA 수감 시설이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나라 시설에는 고급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분류되는 테러 용의자들이 수용됐다.

인권단체들은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 있는 옛 프랑스 감옥 등도 CIA 수감시설로 이용된 것으로 밝혀냈으며, 이들 시설에서 근년에 최대 1천명이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런던 소재 인권단체인 '리프리브'(Reprieve)의 클리브 스태포드 스미스는 "얼마나 많은 테러 용의자들이 CIA의 전체 국외 수감시설들에 지금까지 수용돼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이라크 전쟁과정에서 미군에 붙잡힌 '전범'들을 포함하면 CIA 시설의 현재 수감자는 2만7천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